

# 논란 커지는 경선 연기론...고심 깊어지는 민주당

“온라인 경선, 관심도 흥행도 저조”  
 “원칙 깨는 것은 민심 반감 불러”  
 초선의원 모임 찬반 의견 팽팽  
 대선기획단 출범후 결론 내기로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물론 의원들이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 문제를 잘못 다뤘다가는 후폭풍이 크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대선기획단을 떠난 뒤, 내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각 후보 진영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심이 크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통 큰 결단론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쪽은, 여름 휴가철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면 국민적 관심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당헌 개정이 당무회 논의의 우선순위에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역동성 있는 경선을 진행하고 미래 비전을 창출, 정권재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보다 먼저 후보가 선출되면 전술상 공격담판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연기론의 근거다.

경선 반대 진영에서는 ‘기존의 경선 원칙을 깨는 것은 오히려 민심의 반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기에 대선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차기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 4·7 재보선 참패도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

에 치열한 난상토론과 경쟁구조 등 콘텐츠만 있으면 경선 연기 없이도 흥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각 후보들의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도 경선 연기 불가론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는 15일 대선 후보 경선연기론을 놓고 계파 대립전 양상이 펼쳐졌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김두관 의원 등을 지지하는 측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여론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원칙대로 경선 진행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경선 연기를 주장한 의원들은 숫자만 놓고 보면 전체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이병훈·장철민·홍기원·김민철 의원 등이다. 이들은 야당 후보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합한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경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한 한 의원은 “의원총회 안전으로 올러논 의하자”라고까지 제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김남국·이규만·이해식·이수진 의원 등 이 지사를 돕고 있는 의원들은 명분 없는 경선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4·7 재보선 참패 원인과 관리당원들의 경선 연기 반대 여론 등을 거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경선 연기론을 둘러싸고 내부 논란이 커져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기획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대선 예비 경선 후보 등록도 조금 늦춰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대선경선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권주자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범여권 총출동 ‘6·15 정신’ 기려...“남북관계 새 해법 찾자”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  
 “북에 백신 나눠 남북관계 물꼬”

여권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 및 대권주자 등 범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송영길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이 6·15 정신으로 돌아가 새로운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철학을 계승, 발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너무 답답한 할 일은 아니다”라며 “김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독자적 판단과 자주적 도전, 미국 정부를 설득할 용기와 논리를 갖추라고 주문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두세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21년 전 김 전 대통령이 어떻게 많은 준비를 해 큰일을 이뤘는지 다시 새기면서 준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됐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모두 원점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통탄스럽다”며 “국민들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남북 관계를 광장처럼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며 “우리가 1억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니 그걸 좀 아껴 북한 동포들과 나눠 남

북관계 물꼬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 성과도 6·15 남북정상회담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며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화해와 평화 협력의 길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이들 외에도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야권에서는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장성민 세계야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유일하게 자리했다. ‘DJ 적자’로 알려진 장 이사장을 비롯, 동교동계 가신그룹에서는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훈평·윤철상·김육두 전 의원, 민주당 실훈 의원, ‘DJ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전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 문대통령, 독일 큐어백 CEO와 화상면담

### “백신 개발·생산 협력 강화”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제약사 큐어백사의 프란츠-베르너 허스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큐어백사는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지난 1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의 강점을 가진 한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은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독일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허스 CEO는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

의 우수성에 공감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면담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큐어백사의 안토니 블랑 최고사업책임자(COO)가 화상으로 배석했다. 청와대는 “오늘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큐어백사는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은 물론, 전 세계적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유럽 순방에서 ‘백신 외교’에 초점을 맞춰왔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콘월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글로벌 CEO를 만나 전 세계적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설명하며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할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미국에 이어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합뉴스

## 민주, 광주 붕괴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사건’에 범위에 기존의 공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시설 외에 건축 및 해체 건설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겠다”며 “또 시행

령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6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해 해체 공사장 안전대책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겠다”며 “6월 국회에 이 법들이 처리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밖에 산재 예방 3법으로 이름 붙인 소방기본법·항만운송사업법·건설안전 특별법의 6월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법 제정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중대재해법의 시행이 1년 유예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 대해 추가로 1년 이상 유예된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사고가 제일 자주 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원내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을 바꾸지 못하면 의미 없다”며 “총체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062)531-3530, H. 010-9229-3530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첨단우리병원